

석유류 두 달째 급등... 생산자물가 28년 만에 최고

석탄·석유제품 가격 급등세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생산자물가 상승폭이 2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원재료 수입 가격도 큰 폭으로 뛰며 앞으로의 소비자물가에 압력을 주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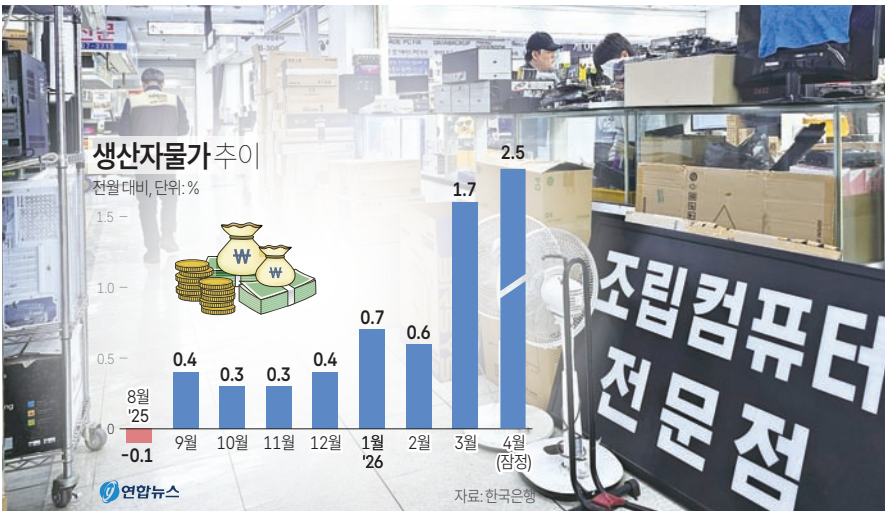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202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약 28년 전인 1998년 2월 2.5% 이후 최고치다.

중동 리스크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앞다퉈 뛰며 공산품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전체 공산품은 전월 대비 4.4% 상승했고, 이 중 석탄·석유제품은 31.9%, 화학제품은 6.3% 올랐다. 석탄·석유제품은 3월에도 32.0%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도 상승하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4월의 경우 개별 품목 중 석탄·석유제품 중 솔벤트는 전월 대비 94.8%, 경유가 20.7% 상승했다. 나프타 계열 석유화학제품인 폴리에틸렌수지가 33.3%, 폴리프로필렌수지가 32.0% 올랐다.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 기기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 기기는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17.4% 상승했다. 주요 등록 품목을 보면 DRAM은 전월 대비 37.8%, 전년 동월 대비 396.0% 급등했다. 컴퓨터가격장지도

4월 중동전 여파로 전월보다 2.5% 뛰어 솔벤트 94.8% 폭등... 경유도 20.7% 치솟아 농림수산물 하락세에도 물가잡기 역부족



전월 대비 10.7%, 전년 동월 대비 180.4% 올랐다. 금속제품 가격도 올랐다. 1차 금속제품은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11.8%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알루미늄판이 전월 대비 14.9%, 텅스텐 1차제품이 18.6%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동1차정련품이 45.5%, 금괴가 51.5%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은 운송서비스와 금융·보험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3.8% 올랐다. 운송서비스는 국제항공여객과 항공 화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1.6% 올랐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는 3.0% 상승했다.

농림수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물가를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4.0%, 3.2% 내리며 전월

대비 1.0% 하락했다.

특수분류별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컸다. 에너지는 전월 대비 7.9% 상승했고 정보통신기술(IT)도 1.2% 올랐다. 반면 식료품은 0.4%, 신선식품은 5.7% 각각 하락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는 전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7.0% 상승했다.

국내공급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4월 국내공급물가는 전월 대비 5.2%,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원재료는 28.5%, 중간재는 4.3% 올랐다. 특히 원재료 부문에서는 수입이 36.5% 상승했고 국내출하는 0.2% 내렸다. 중간재 수입도 8.9% 올라 국내출하 상승률 3.4%를 웃돌았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최종재도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최종재 중 자본재와 소비재, 서비스가 모두 0.5%씩 올랐다.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국내출하와 수출을 포함한 총산출물가도 상승했다. 4월 총산출물가는 전월 대비 3.9%, 전년 동월 대비 13.8% 올랐다. 수출은 7.8%, 국내출하는 2.5% 상승했다. 공산품은 수출이 7.9%, 국내출하가 4.4% 각각 오르며 전체 총산출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CJ올리브영이 미국 본토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 미국 패서디나 매장 전경 투시도. 올리브영

올리브영, 美 첫 매장 오픈

패서디나에 1호점... 온라인몰도 론칭

CJ올리브영이 미국 본토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세계 최대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내에서 축적한 K 뷰티 큐레이션 역량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미국 현지에 이식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올리브영은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콜로라도대로 58번지에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을 개점한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전용 온라인몰도 함께 선보인다. 올리브영이 미국 현지에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패서디나점은 개점 초기 약 400개 뷰티·웰니스 브랜드의 상품 5000여 종을 판매한다. 국내 올리브영에서 인기를 검증한 K뷰티 브랜드와 북미 시장에서 반응이 높은 브랜드, 미국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브랜드를 함께 구성했다. K뷰티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짧게는 2주 단위로 매대 상품 구성도 바꿀 예정이다.

매장은 단순 판매 공간보다 체험형 쇼룸 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하얏루론 산, PDRN 등 K뷰티 대표 성분을 소개하는 매대와 기능성 스킨케어 상품, 팔사패치 등 미용소품을 함께 배치한 연계 진열 공간을 마련했다. 클렌징 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수전과 토너 패드, 선크어 제품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공간도 갖췄다. 피부·

두피 진단 서비스와 K뷰티 스킨케어 루틴 컨설팅도 제공한다.

올리브영은 패서디나점 개점과 함께 미국 전용 온라인몰도 론칭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발견과 체험이 온라인 구매와 재구매로 이어지는 윌니채널 구조를 미국 시장에서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글로벌몰은 60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을 제공했지만, 미국 온라인몰은 35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적용한다. 캘리포니아주 블루밍턴에 마련한 현지 물류센터를 활용해 배송 기간도 기존 5~7영업일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올리브영은 초기에는 LA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고, 이후 중남부와 뉴욕을 포함한 동부권 핵심 상권으로 오프라인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패서디나점에서 확보한 고객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 구성, 서비스, 매장 동선, 프로모션 전략도 고도화한다.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국내에서 K뷰티 쇼룸 성지이자 방한 관광 랜드마크 자리잡은 올리브영이 글로벌 핵심 거점인 미국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해외 시장에 K뷰티와 K라이프스타일이 더욱 깊숙이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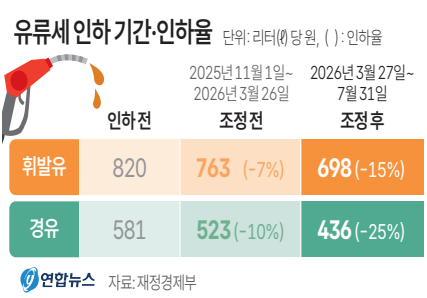
물가 안정위해...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중동전쟁의 여파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테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안정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2021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조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인하 폭이 30~37%까지 확대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으나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면서 다시



인하 폭을 확대한 상태다.

정부는 특히 3월27일부터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연장 결정으로 7월까지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세금이 기존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인하된 수준이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이 적용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관수 경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 판매 가격이 산정되도록 돼 있어 소비자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7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1년 9개월

6월 이후 유류세 운용안 발표
휘발유, 리터당 763원→698원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정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 흐름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확보한 목적예비비는 약 4조2000억 원 규모다.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차관보는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당한 시점에 별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진 기자 smkim@skyedaily.com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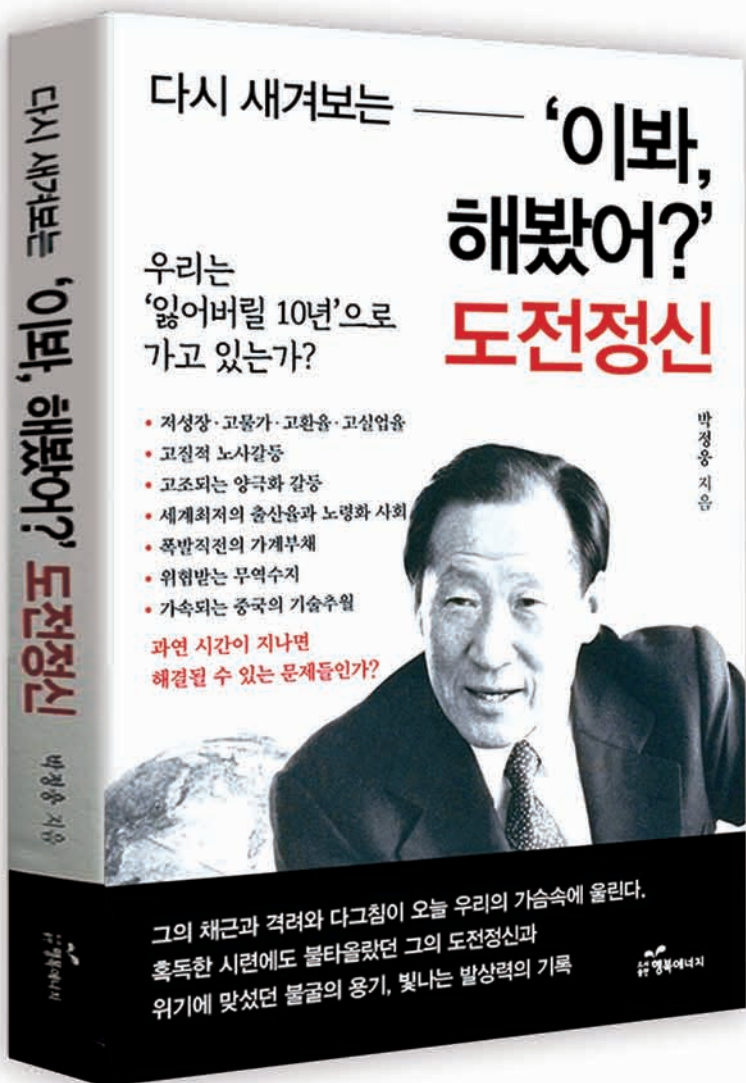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단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쇄신,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켜졌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